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2호 【루계 제24505호】 주체103(2014)년 4월 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4월 1일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룡해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윤동현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비행장에 도착하시자 행군대원들은 적들의 침략전쟁연습이 위험도수를 넘어선 첨예한 시기에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자기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수천리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지휘관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답사행군대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면서 투사들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였으며 눈을 깔고 누워 자면서도 해방된 조국을 그려본 투사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슴후덥게 새겨안았다는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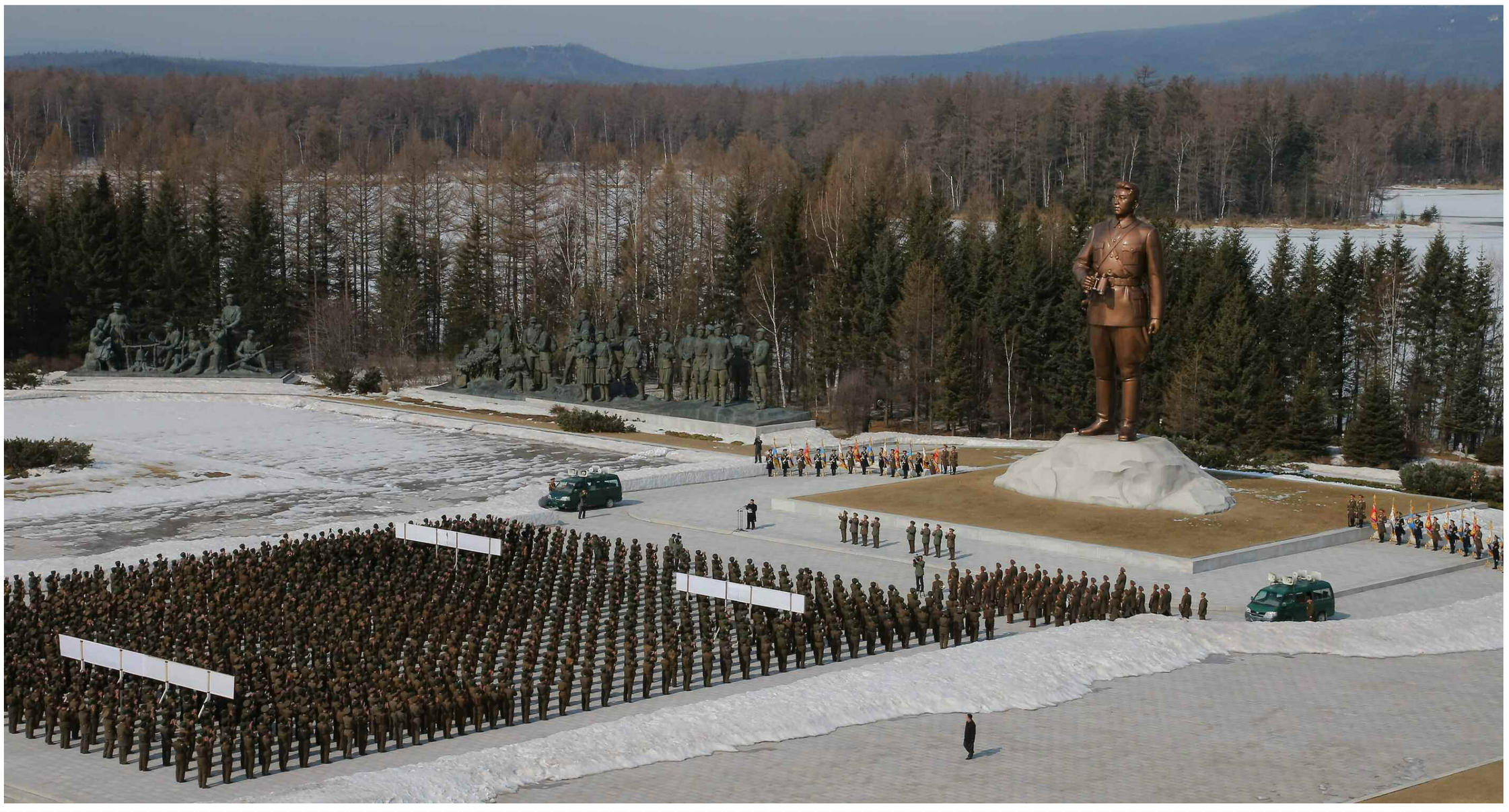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당이 준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오중흡형의 지휘성원이 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맹세하는 결의대회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결의대회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구호들이 게시되여있었다.

결의대회는 노래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결의대회참가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유서깊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쳤다는 보고를 받고 동무들이 보고싶어 한달음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보며 동무들과 함께 답사행군길을 걷는 심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고 하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았을 것이라고, 그 과정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시원,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하였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대로 방임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수도 없다는것,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억세게 벼리여진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앞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 부대장 전용학, 제438군부대 정치위원 홍청일, 제858군부대 부대장 리일찬, 제230군부대 정치위원 박영관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력사의 땅 삼지연에서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고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토로하였다.

그들은 새 세대 지휘관들인 자기들을 백두산전구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부대군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미제침략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아성을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리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4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대회에서는 전군의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결의대회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답사행군길에서 다진 조선혁명의 넋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백배로 발휘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념원대로 이 땅, 이 하늘아래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김명식동지, 박태수동지, 김영철동지, 조경철동지, 한광상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개자는 모란봉악단이 량강도에서 공연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짓뭉개버리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순회공연을 앞둔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해 나오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란봉악단이 량강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량강땅에 장엄한 음악포성을 울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만발하는 **김정은**시대 음악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녀성2중창 《흥하는 내 나라》,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어버이》,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녀성3중창 《하늘아래 첫집》, 바이올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흠모》, 녀성3중창 《대홍단 삼천리》, 녀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녀성독창 《내 삶의 보금자리》, 녀성중창 《잠수함해병의 노래》,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인민은 일편단심》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혁명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인민이 누려갈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그이와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감명깊은 노래들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였다.

젊음과 활력에 넘친 성악, 독창적이며 열정적인 기악, 세련되고 우아한 안삼블, 시대정신이 굽이치는 아름다운 선률로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가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는 날로 커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제일나팔수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음악포성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온 나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모란봉악단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약동하는 봄계절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는 모란봉악단공연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모란봉악단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술단체이며 모란봉악단공연은 누구나 기다리는 공연이다.

이번 모란봉악단공연에는 새 노래들이 많이 올랐다.

모란봉악단공연무대에 울려퍼진 노래들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노래폭탄과도 같이 세찬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올해 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기쁨과 경사를 맞이하였다. 천만군민의 기쁨과 환희는 공연의 첫 종목으로 울려퍼진 《인민의 환희》로 하여 한껏 분출되였다.

조선의 봄의 환희는 결코 계절이 가져다주는 목가적인 정서가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온 긍지와 자부심이 봄시위처럼 흘러넘치고 우리 원수님따라 희망찬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억센 기상이 뻗치여 내 나라의 봄은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약동하는 봄, 승리의 봄이다.

모란봉악단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어진 천만군민의 혈연의 정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도 깨칠수도 없다는 철리를 시대의 명곡들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선군조선의 봄의 교향곡과도 같은 폭과 깊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신의 운명처럼 간직하고 받들게 되는것은 바로 우리 원수님과 혈맥처럼 이어진 뜨거운 정이다. 노래 《뜨거운 정》의 가사는 그대로 우리의 생활이고 천만군민모두의 마음속진정이다.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정으로 하여 천만군민은 사는 곳 다르고 초소와 일터는 달라도 자나깨나 원수님생각으로 날과 달을 맞고 보내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은 노래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에 절절하고도 뜨겁게 굽이쳐흐르고있다.

별뜨는 밤 오셨던 길 동이 틀 때 또 오시며 인민위해 바치시는 그 은정커만 가네라고 노래한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을 들으며 우리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불면불휴의 헌신과 천만군민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격정속에 새겨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언제나 소중히 안고 사는 병사들은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에서 형상되였듯이 포연탄우 빛고가도 두려움을 모르는것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전의 보고드리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간주하는것이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억세인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노래 《용사들》, 조국과 영생이라는 의의있는 사회정치적주제에 명곡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댄 용사들의 삶은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한다는 혁명의 철리로 해답을 주고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보여오는 얼굴들 웃으면서 떠날 때처럼 돌아올 그 모습들이라는 가슴젖어들게 하는 노래는 그대로 몇달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뜨거운 눈물속에 체험한 혁명적동지애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시켜주고있다. 동지애의 위대한 서사시가 노래가 되여 울려퍼지고 숭고한 동지애의 화폭이 무대배경에 펼쳐질 때 천만군민은 용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는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감정으로 하여 공연의 마감에 울려퍼지는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그대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선군조선의 대답으로 시대의 메아리가 되는것이다.

모란봉악단에서는 이번에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노래 《바다 만풍가》를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공연무대에 올리였다.

이번에 모란봉악단공연무대에 울려퍼진 《바다 만풍가》는 지난해 동해의 한 수산사업소에서 이룩된 물고기대풍을 생활소재로 한 작품이다. 노래 《바다 만풍가》는 수산업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준 동해의 경이적인 성과는 당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밝힌것으로 하여 당정책가요의 전형으로, 본보기로 되였다.

노래의 매 절의 첫 구절인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대풍을 이룩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기쁨속에 하신 말씀을 가사로 옮긴것이다. 사회주의부귀영화가 꽃펴나는 내 나라의 바다가 풍경을 집약화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금같고 주옥같은 시어는 그대로 시대의 명곡이 태여나게 하였다.

노래 《바다 만풍가》는 기름지고도 풍만한 형상을 통하여 당의 혁명사상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나 일치하며 우리 인민이 리해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못할 로선과 정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밝힌것으로 하여 그토록 정서적여운이 큰것이다.

이번 모란봉악단공연은 그야말로 계절을 앞당기며 천만심장에 화창한 봄을 안겨준 환희로운 공연이다.

배우들의 참신하면서도 활력에 넘친 노래형상이 배경과 무대조명, 무대장치를 비롯한 형상요소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된 공연은 그야말로 온갖 꽃 만발하고 노래소리 높은 모란봉을 떠옮겨놓은것만 같았다.

모란봉악단이 안아온 공연열풍은 지금 온 나라에 거세찬 비약의 불바람으로 타번지고있다. 모란봉악단공연무대에서 울려퍼진 노래들이 지금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으며 이 노래들과 더불어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원쑤들에게는 철추가 되고 천만군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시폭탄, 노래폭탄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이 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주체의 문학예술이 있는 한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더욱 부강번영하게 될것이다.

차 수

평양의 봄을 청춘의 약동과 혁명적활력으로 들끓게 한 모란봉악단공연의 메아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리충성, 김진명 찍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5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미래를 밝힌 전략적대강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사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청년동맹의 근본사명과 임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청년동맹사상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전투적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년동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들속에 로작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동맹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동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의 령도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맹원들속에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과학중시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쓸어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동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사상포문을 열어나가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양, 강연, 선동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은 1970년대 일군들처럼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년들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선전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범적인 단위들에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주체102(2013)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2.8직동청년탄광, 룡림탄광, 문천탄광, 무진대청년탄광, 강동석탄탐사대, 흑령석탄탐사대,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 서두수발전소, 허천강발전소, 위원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통천발전소, 라선시송배전부, 문천강철공장, 정주기관차대, 평양객화차대, 함흥역,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송평역, 신성천역, 신의주청년객화차대, 영광철길대, 김책역, 송평객화차대, 룡성고기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동대원은하피복공장, 박천견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대흥모피공장, 하당은하피복공장, 경성도자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봉학식료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함흥제사공장, 평양메기공장, 녕변견직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성천강은하피복공장,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함흥후방가족은하피복공장,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 해안은하피복공장, 회상은하피복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 송도원은하피복공장, 원산은하피복공장, 강계편직공장, 평원은하피복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사리원은하피복공장, 북창은하피복공장, 평성대성편직공장, 회창군기초식품공장, 금성식료공장, 회창식료공장, 릉라도피복공장, 애국최종락피복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선흥식료공장, 락랑은하피복공장, 순안대성피복공장, 순안피복공장, 룡성은하피복공장, 대동강은하피복공장, 옥류봉화피복공장, 문수봉화피복공장, 락랑봉화피복공장, 락원봉화피복공장, 만경대봉화피복공장,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대성창작사,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맥주공장, 개성송도피복공장, 개성대성피복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백두산들쭉가공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 룡양광산, 천마광산, 대동강축전지공장, 안주뽐프공장, 장림광산, 단천광산기계공장, 신흥광산, 옹진지질탐사대,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옹진광산, 평산광산, 평양326전선공장,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정평농기계부속품공장, 안주절연물공장, 봉화화학공장, 해주화학공장,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모체), 설비조립련합기업소(모체), 화학건설련합기업소(모체), 화력건설련합기업소(모체), 대안친선유리공장, 수력설비조립사업소,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평천부재공장,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사업소, 평양승강기공장, 온천화강석광산, 대성요업공장, 평양석재공장, 동평양금속건구공장, 림흥대동강건설사업소, 대동강건설사업소, 개성시주택보수사업소, 원산발전소건설사업소, 영광가구합영회사, 청강기계화사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함흥목재가공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신양갱목생산사업소, 덕천갱목생산사업소, 국토환경보호성중앙양묘장, 대동강렐레비죤수상기공장, 전자제품개발회사, 운전수산사업소,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흥남대경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 김책대흥가공사업소, 한천대봉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청진항, 남포항, 령남배수리공장,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기동려단, 서해갑문사업소, 칠골기동려단, 갈림길기동려단, 해주항, 원산항, 만경대승용차사업소, 뻐스수리공장, 모란봉뻐스사업소, 함흥좁은철길운영사업소, 남포항만건설사업소, 신의주선박공장, 송림항, 송림해운사업소, 평양무궤도전차수리공장, 문수무궤도전차사업소, 삼마뻐스사업소, 사동뻐스사업소, 사리원해운사업소, 만경대차수리공장, 인민봉사총국 운수봉사사업소, 서포량곡수송기동대, 장진량곡수송기동대, 중앙정보통신국, 중앙우편출판물체송국, 함경북도정보통신국, 평안북도정보통신국, 황해남도정보통신국, 황해북도정보통신국, 강원도정보통신국, 량강도정보통신국, 흥남제약공장, 신의주마이싱공장, 평양예방약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장수고려약공장,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 평양종합인쇄공장,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평양상표인쇄공장, 과학기술도서인쇄공장, 평양교등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시인쇄공장, 함남일보사 인쇄공장, 평양피아노합영회사, 조선화구공장, 영화 및 무대미술제작소, 창광원, 기상수문관측계기공장을 비롯한 344개 단위.

【조선중앙통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김 정 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결정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평양대동문인민학교(당시)의 교정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종소리를 높이 울리던 그때로부터 마흔두번째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은 한순간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떠받들려 짧지 않은 이 력사적기간에 우리의 주체교육은 혁명인재육성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의 력사적사변을 맞이하고있다. 그와 더불어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물론 학부형모두가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너도나도 마음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짚을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주체교육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의 시각을 맞이한 지금 우리 인민모두는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쪼개가시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선 어린이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첫 수업참관도 하여주시고 그들이 리용하는 교과서와 학습장도 보아주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된 평양제1중학교를 찾으시여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도 크나큰 격정속에 그려보고있다.

우리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는 이 세상에 없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속에서 우리 나라는 배움의 나라로 전변되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대문이 활짝 열려져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희망을 꽃피워가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하고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의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당과 국가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물리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써야 하는 조건에서 소학교학제를 1년 늘이고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써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선뜻 리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내세운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인재양성에 유리하게 학제를 늘이는 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투자가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어쩔수 없이 장기적인 전략적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결정하는것이 응당한 관례로 되고있다.

그러나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열의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굳게 확신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용단에 의하여 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부문에 국가적투자가 집중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중시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데 이어 주체103(2014)—주체104(2015)학년도부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따라 교육이 시작되게 되였으며 2~3년안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할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가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사변이라는데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혁신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육성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그러자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춘 교과서를 마련하고 교육자들의 책임성과 역할, 자질을 높이며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수단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습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혁명인재육성의 합법칙적요구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근본추세를 환히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의 중심고리를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에서 찾으시고 다른 나라들의 중등일반교육과정안을 모두 연구하고 교과서를 세계선진수준에서 완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중등일반교육의 수준을 세계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사업의 기본수단인것만큼 그 내용과 서술방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새 교과서작성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단 한해사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십종에 달하는 수천만부의 교과서발행사업이 성과적으로 완료되는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 련관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마련한 새 교과서를 받아보며 학부형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은 보다 휘황하게 변모될 조국의 미래, 보다 훌륭하게 자라날 새 세대들의 앞날의 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그려보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과 그 성과적집행을 위한 새 교과서에 대한 강습이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고 전국의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에게 새 교과서를 동시에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2, 3학년단계의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련이어 힘있게 조직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사들을 마련하는 사업이 다그쳐지고 교육의 물질적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있으며 자연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여가고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선포하는 새 학년도의 랑랑한 종소리, 이것은 교육사업을 부강조국건설의 억센 기둥으로 내세우고 교육사업의 새로운 전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는 력사의 선언과도 같다. 동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승리를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혁명인재의 대군에 의거하여 최첨단돌파전으로 실현하려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장쾌한 포성으로 된다.

주체교육발전사에 길이 빛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시대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떨치는 일대 사변이다.

지금 교육부문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사상을 실천에 구현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첫 개교의 종소리가 울려퍼진 올해에 높은 자질을 소유하고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과 관리운영사업을 비롯한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모두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선군조선의 아들딸,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기둥감들을 키워낸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충실한 열매를 자래우는 밑거름이 되여 맡은 혁명임무수행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승 두

주체103(2014)년 새 학년도 시작

각지 학교들에서 개학식 진행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조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다. 온 나라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은 새로운 희망과 포부, 기쁨에 넘쳐 뜻깊은 주체103(2014)년 새 학년도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받들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새 학년도의 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5년제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1일 오전 전국의 모든 대학, 전문학교, 고급, 초급중학교, 소학교들에서 일제히 개학식이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해주의학전문학교, 보통강구역 류경고급중학교,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 김성주소학교,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 등 온 나라의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 소학교들의 개학식장들은 신입생들과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로 흥성이였다.

개학식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개학식들에서는 축하발언과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발언자들과 토론자들은 후대육성사업에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새 세대들을 선군조선의 억센 기둥감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우월한 교육이라고 하면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교육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학생들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고마운 어머니당과 조국의 따뜻한 사랑과 기대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가는 재능있는 인재로 자라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학식들이 끝난 다음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였다.

—김성주소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더 활짝 피여라, 12년제꽃대문의 첫 주인공들아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제4소학교를 찾아서

뜻깊은 새 학년도 개학날을 맞은 4월 1일 아침 우리는 평양제4소학교를 찾았다.

부모들과 함께 학교로 향하는 12년제꽃대문의 첫 주인공들—신입생들의 물결로 하여 봄빛질은 수도의 거리들이 더욱 설레이는듯싶었다.

학교정문앞에는 학부형들과 신입생들로 붐비고있었다. 가슴마다에 꽃송이를 달고 영광의 교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나어린 신입생들의 얼굴들은 하나와 같이 밝고 기쁨에 넘쳐있었다.

얼마나 복받은 새 세대들인가. 주체교육발전사에 특기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우리의 가슴은 마냥 뜨거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어느덧 신입생들모두가 축하의 꽃보라속에 묻혀 교문으로 들어섰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으로 들어선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절감하는 학부형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느라니 제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던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공고한 후대사랑을 가슴에 새겨안고 자식들을 더 훌륭히 키워가겠습니다.》

신입생 홍채령학생의 어머니 채은희동무가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였다.

개학모임이 끝나자 신입생들은 교실로 향하였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1학년 1반의 교실에 들어섰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는 새 학년도의 첫 수업이 시작되였다. 첫 수업은 국어였다. 담임교원인 김옥경동무가 제1과 《나도야 학생》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교재의 그림을 관찰하고 생각되는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관찰력을 키워주고 사고를 계발시키며 그들의 발표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선생님의 물음에 내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하는 길승주학생, 공부를 잘해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홍채령학생, 그뒤를 이어 의사, 교원, 영웅이 되겠다고 저마끔 자기의 희망을 터놓는 나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정말 꿈과 희망도 많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축복속에서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꽃피워가는 새 세대들이 저저마다 다지는 조선을 위하여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갈 결의도 대견스러웠다.

진정 태양의 영원한 빛발아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갈 열의로 가슴설레이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더 활짝 피여라, 12년제꽃대문의 첫 주인공들아,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글 본사기자 공로혁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일행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조몽정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자주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무역상과 몽골 공업 및 농업상 회담

조몽정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룡남무역상과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의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황민 농업성 부상 겸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공업 및 농업상일행, 마니바드라힌 간볼드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남포시내 여러곳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일 남포시내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찾은 손님들은 공장이 대규모의 현대적인 유리생산기지로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남포종합식료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평양과 원산, 평성, 해주, 남포 등지에서 축구, 롱구, 배구, 력기, 레스링, 유술, 지상호케이, 륙상, 체조를 비롯한 수십개 종목으로 나뉘여 진행된다.

개막식이 1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영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체육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기백과 열정을 보여주는 뜻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당이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더 많은 새 기록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4.25팀과 압록강팀사이의 남자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파키스탄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1일 조선파키스탄친선 대성구역 6월9일통북고급중학교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싸이에드 하싼 하비브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파키스탄친선협회 위원장인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 성원들, 학교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연혁소개실에서 해설을 들은 다음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선과 파키스탄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진실한 녀성

우리 가정은 10여년전부터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키우고있습니다.

부모잃은 아이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몇년전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 자기의 깨끗한 지성을 바쳐오고있는 훌륭한 녀성이 있습니다.

그는 력포구역도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 박상숙동무입니다. 3명의 제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그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국가적인 명절날들과 아이들의 생일날마다 많은 식료품과 학용품들을 안고 찾아오고있습니다. 올해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많은 물자를 안고 찾아온 그는 꽃다발까지 저의 가슴에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부모잃은 그 애들을 어찌 제 혼자서 키운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당의 뜻을 받들어 이렇듯 진정을 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애들의 친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하고싶습니다. 진정 내 나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말입니다.

력포구역 장진1동 김진숙

ㄱ-4105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